

태국의 세대 정치: 세대의 차이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이 정 우**

국문초록

세대 요인은 2019년 총선에서 아나쿿마이당이 약진한 이후 태국의 주요한 사회적 균열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렇다면 2019년 이전에는 세대의 차이에 따른 차이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세대가 사회적 균열로 나타날 전조증상은 없었는가?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4년과 2018년에 수행된 아시아안 바로미터 조사(Asian Barometer Survey)를 활용하여 세대 차이가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었던 가족들과의 정치적 대화는 세대에 상관없이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세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더해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권자가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 주장한다. 분석을 통해 시위에 참여 경험이 있으면 정치적 관심도가 높았으며,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때 정치적 관심이 낮았다.

주제어: 세대 정치, 시위, 아시아안 바로미터 조사, 유권자, 정치적 관심, 태국

*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고려대 신재혁 교수님, 서정인 前 대사님, 덕성여대 채현정 교수님, 고려대 길정아 박사님, 박재후 선생님, 한국동남아학회 대학원생 연구모임의 전경진, 박준영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jeongwoo_lee@korea.ac.kr

I. 서론

2019년, 아나콧마이당의 등장은 태국 정치에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옐로우 셔츠와 레드 셔츠, 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의 대립으로 이루어지던 태국 사회의 균열에 세대라는 변수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세대 변수는 2023년에도 이변을 일으키며 아나콧마이당의 해산 이후 등장한 까우끌라이당이 의회 제1당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연구들은 젊은 유권자들이 아나콧마이당을 지지하게 된 이유로 그들의 공약을 꼽는다. 아나콧마이당은 젊은 세대에게 밝은 미래의 희망을 주었으며 타나턴 쩡롱르영킷(Thanathorn Juangroongruangkit)을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이 가진 전문성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다(McCargo and Chattharakul 2020: 52).

젊은 유권자의 아나콧마이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에는 공약과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전조증상 또한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대의 차이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관심이 아나콧마이당 지지라는 정치참여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심이란 정치사회학의 관점에서 선거 참여, 시위 참여,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로 연결되는 변수이다(박선경·신재혁 2019; Prior 2010; Lupia and Philpot 2005). 본 연구는 젊은 세대에 의한 아나콧마이당 지지의 전조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도 이전의 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 세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태국 대중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새로운 변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기존 연구는 인터넷의 사용(Dokchaba and Khorpompraset 2019; Surapreset

et al. 2021),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박선경·신재혁 2019),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신뢰(Bhuket 2013)가 유권자의 정치참여,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이 세대에 따라서 어떤 효과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통계적으로 살펴본다. 통계 분석의 장점은 이러한 효과가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는지 확률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대의 효과가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를 제시한다.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권자가 정치에 더 관심이 많고, 세대에 따라 시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63년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1976년 탐마삿대 학살과 1992년 5월을 경험한 세대이다. MZ세대보다 연령이 높은 세대는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과거의 두려움이 자극되어 정치에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설을 제시하면서 세대의 효과가 어떻게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세대 분석에 있어 중요한 점은 각 세대의 평균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세대에 속한 개인은 세대가 보이는 경향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나이 든 유권자가 젊은 유권자와 연대하여 그 세대가 보이는 흐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Rouse and Ross 2018: 5).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 과제로 두면서 본 연구는 세대가 보이는 평균적인 특징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태국에서 나타난 세대라는 사회적 균열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태국 정치의 기존 연구, 특히 아나콧마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의 연구(McCargo and Chattharakul 2020)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 인터뷰와 설문(focus interview and survey)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Lertchoosakul 2021c). 인터뷰 대상자의 구술은 개인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다. 구술은 추후 역사적 해석과 재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이재성 2007: 181)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상보적인 입장에서 태국 국민의 표본을 수집하고 특정 집단과 대상뿐만 아닌 전반적인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그 중 세대 균열이 미친 영향이 2019년 이전에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 검토를 수행한다. 태국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에서 수행된 세대와 정치적 관심을 주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본 연구의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세대가 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 균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를 논의하고 가설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자료, 방법론, 변수의 측정을 설명한 다음 가설의 검증을 뒷받침하는 양적 분석의 결과를 보인다. 양적 분석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면서 추후 수행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하고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미국과 유럽에서의 세대와 정치적 관심 연구

세대의 차이점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지역

은 미국과 서유럽의 국가들이다. 미국과 서유럽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경험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태를 보였는가가 기존 연구의 주된 질문이었다. 밀레니얼 이후 세대는 1981년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 말로,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는 이전의 세대에 비해서 낙관적이며 진보적이라는 것(Rouse and Ross 2018)이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Z세대의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McDonald and Deckman 2023),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Towner and Munoz 2016)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치적 관심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을 종속변수로 상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정치참여 대신 정치적 관심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상정한 정치참여에는 많은 범주가 있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한 참여부터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다양하여 종속변수의 설정이 중요하다. 정치사회화 과정에 따르면 정치적 관심이 생겨나고 이후에 정치참여로 이어진다(박선경·신재혁 2019; Lupia and Philpot 2005). 어떠한 요인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근원적인 접근이다(Prior 2010: 747). 본 연구는 우선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추후에 후속될 연구로서 그러한 정치적 관심이 유권자의 어떤 정치적 행동 혹은 참여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기 위해 정치참여와 같은 종속변수 설정한 연구까지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를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유권자들에 비해 좀 더 시위에 많이 나가고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생애주기

(lifecycle)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Quintelier 2007).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급진적으로 행동할 경우, 그러한 관계를 그르칠 일이 생기니 조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이다. 스승, 부모, 친구들과의 정치적 토론이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향상한다는 정치사회학의 주장을 확인한 것이다(Dostie-Goulet 2009).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는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Haenschen and Jennings 2019).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래 집단과의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한 토론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들은 그 윗세대에 비해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의 정보 수집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owner and Munoz 2016).

이러한 연구 전통을 바탕으로 도출한 요인이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에서 발견한 요인이 태국의 사례에서도 어떤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하면서도 다른 요인 또한 검토한다. 인터넷을 제외하고도 다른 요인 역시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위 참가 경험이 세대별로 정치적 관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2. 동아시아, 태국에서의 세대와 정치적 관심 연구

동아시아 전체 혹은 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연구에서 보이는 젊은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윗세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는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관심을 적게 가진다(Brading 2017). 그러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했다

는 차이점이 있다(Chu and Welsh 2015: 126). 추와 웰시는 그들의 논문에서 이를 동아시아 MZ세대의 정치적 역설(political paradox)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정치에는 관심을 덜 갖지만(less engaged) 정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비판적(critical)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 활동의 기회로 활용한다. 홍콩의 우산 혁명과 학생 시위(Lee et al. 2015), 태국에서의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 등(Sinpeng 2021a; Phalapong 2022; Charoenthansakul and Natee 2023)도 이러한 예시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태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경험하였는지 기술하고, 그들의 정치적 관심에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검토하고자 한다.

태국에서 수행된 젊은 유권자 혹은 대학생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체제에 대한 정치적 신뢰, 둘째, 대학에서의 정치적 사회화, 셋째로 학생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Bhuket 2013). 기존의 체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대학에서의 학생 활동이 정치참여를 이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태국의 대학생들은 인터넷과 그에 따른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참여의 동기를 얻는다는 것이다(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Surapreset et al. 2021). 정리하자면, 태국에서는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 정치사회화, 인터넷의 영향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아시안 바로미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요인이 태국 대중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가를 살펴본 연구를 검토하자면, 대표적으로 태국 대중의 민주주의 인식과 관심을 분석한 서경교·고

영준(2020)을 들 수 있다. 두 저자는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태국 대중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에 상관없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군부라도 민주주의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즉, 앞으로의 정국은 군부가 어떻게 끝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본 연구는 서경교·고영준(2020)을 통해 유권자가 군부를 위시한 현 정부에 대한 만족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추를 얻는다. 군부에 대한 유권자의 만족도를 변수에 포함하면서 다른 요인이 태국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역시 같은 아시안 바로미터 데이터를 이용하는 태국 대중의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는 판케우, 타나니티쑈, 싸딧폰(Pankaew et al. 202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2002, 2006, 2010, 2014년 4년 주기의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를 이용하여 정치에 대한 효능감, 정당 가입 여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에 속하는 것이 태국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문제점은 바로 종속변수에 있다. 종속변수를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와 같은 질문지를 이용하고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회귀분석에 이용하려면 적어도 독립변수가 시간상으로 종속변수 이전에 떨어진 것이어야 한다. 태어난 성별 혹은 지역은 선행할 수 있어도 심리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종속변수에 선행하는지 알 수 없다. 예컨대, 시위에 참여해 본 경력이 있어서 정치에 관심이 높아진 것일 수도 있고, 이전 선거에서 투표했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선거에서도 투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종속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바로미터 설문지는 설문 당시의 태국 국민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에 관한 관심 정도를 표시하게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변수들은 과거에 정치적 활동을 경험해보았거나 정당과 같은 정치적 집단에 지난 12개월 안에 속한 적이 있느냐를 묻고 있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적 순서를 보정하면서 태국 국민들의 정치 관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접적으로 인터넷의 사용이 태국 국민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미수완(Meesuwan 2016)의 연구를 볼 수 있다. 미수완은 개인의 성별과 연령, 사회경제적 변수를 모두 통제하더라도 인터넷의 사용은 태국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더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미수완의 논문도 같은 문제점에 직면한다. 이전의 판케우 등(Pankaew et al. 2022)의 논문과 똑같은 방법으로 종속변수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 전후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치참여를 더 잘하는 것인지, 정치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 더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 없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적 관계를 바로잡으면서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MZ세대와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종속변수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한 관심은 아니지만, 2020년 이후 태국 MZ세대가 시위에 참여하게 된 요인을 질적 인터뷰로 추적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번 흐름의 연구에서 시위에 참여하게 된 요인을 분석하면 어떤 요인이 태국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렛추싸꾼(Lertchoosakul 2021a)은 1996년 이후에 출생한 유권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시위의 중심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1996년생 이후 출생자는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나콧마이당의 해산이 시위 참석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답했고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왕실과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가 시위 참여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아나랏마이당의 해산이라는 일시적인 원인만이 대학생들의, 혹은 젊은 세대의 시위 참여에 원인은 아닐 것이다. 시위 참여 이전에도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이 있어 시위에 참여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젊은 세대의 시위 참가 여부는 아니지만, 아나랏마이당의 해산 이전에도 젊은 MZ세대가 정치에 무엇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혹은 관심이 없었다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시위에도 참가하고 선거에서도 표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맥카르고(McCargo 2021)도 랫썬과 비슷한 관점에서 아나랏마이당의 인터넷 홍보가 젊은 세대의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지만 홍보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보다는, 쿠데타 이후부터 2019년 총선의 사이에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분석이다.

셋째, 2018년과 2019년의 태국 정치를 조망하는 논문의 경우(김홍구·이미지 2019; 한유석 2020)에는 군부의 신당 창당과 기존 정당의 상호작용이 태국 정치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한유석의 경우에는 2019년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태국의 당시 정국을 살펴보면서 기존의 정치 질서를 비판하는 아나랏마이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근원적으로 당시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 것을 살펴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태국의 민주주의 실험을 다룬 이동운(2020)은 1992년부터 역사적으로 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여왔고, 그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동운의 시각 역시 엘리트와 정당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2019년 총선의 결과에 대한 분석 역시 그러하다. 현시내의 지적처럼 태국에서

MZ세대가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현시내 2023), 따라서 이들이 2019년도 총선 이전에 어떤 정치적 관심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적실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당시 태국의 정국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 상보적인 관점에서 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분석한다.

3. 본 연구의 새로운 분석

이상 살펴본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판케우 등(Pankaew et al. 2022)과 미수완(Meesuwan 2016)의 양적 분석의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태국 정치를 조망하는 논문에서 세대와 정치적 관심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점을 지적하지만(김홍구·이미지 2019; 한유석 2020; 현시내 2023), 어떤 요인이 평균적으로 태국의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젊은 유권자들이 어떤 배경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적 인터뷰의 연구가 다수 있지만(Lertchoosakul 2021a; McCargo 2021), 양적 연구로서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재하다. 질적 연구의 특징에는 현상을 직접 경험한 대상자에 관해 본질적인 인터뷰를 수행하고 구술사를 채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어떤 경향이 통계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 상보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한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세대, 정치적 관심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치사회화와 인터넷의 요인이 동아시아, 특히 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정치사회화, 인터넷 요인뿐만 아니라 태국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지적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변수

로 포함한다. 어떤 요인이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기존의 요인과 더불어서 본 연구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정치적 관심이 없었어도 시위의 경험이 있는 유권자라면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군부가 지배한 시기에 수집된 2014년, 2018년의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태국의 젊은 세대와 윗세대의 차이점을 또한 분석한다.

Ⅲ. 태국 유권자의 세대별 정치적 관심 결정 요인

1. 세대는 태국의 중요한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인가?

사회적 균열이란 어느 사회 내에서 유권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정당을 조직하는 집단적 정체성(shared identity)을 의미한다. 가장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균열은 종교, 도시-농촌, 노동자-자본가 사이의 대립이었는데 개별 국가마다 고유한 사회적 균열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균열은 중첩될 수도 있으며, 어떤 균열이 다른 균열보다 정치적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Ford and Jennings 2020). 태국에서도 유권자들이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으며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사회적 균열이 존재한다.

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균열은 군부와 왕실을 지지하는 옐로우 셔츠(yello shirts)와 탁신계 정당을 지지하는 레드 셔츠(red shirts)의 대립이었다(McCargo 2019: 120). 표면적으로는 시

위자들의 셔츠 색으로 표현하지만, 탁신에 대한 지지는 북부와 동북부 이싼 지방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농민층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또한, 레드 셔츠의 한 축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출신자들이 담당했다. 그에 반해 옐로우 셔츠의 활동은 경제적으로 중상계층(upper middle class)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탁신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저소득층, 중하계층(lower middle class)에 대한 반발로 군부와 왕실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Sinpeng 2021b: 15). 특히, 방콕의 중상계층은 탁신의 중하계층과 저소득층 정책을 자신들에 대한 소외로 느꼈다. 중상계층은 저소득층과 중하계층의 탁신 지지와는 달리 정치적 균열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탁신의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Lertchoosakul 2021b). 이러한 대립이 이제까지 태국의 사회적 균열을 형성했다.

그러나 2019년 총선에 들어서 기존의 사회적 균열에 도전하는 다른 집단의 유권자가 등장하였다. 당시 태국의 젊은 유권자들 중 2011년 총선 이후 열린 선거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인원이 많았다. 당시 유권자의 14.7%가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인원이었다(McCargo and Chattharakul 2020: 62). 이러한 유권자들이 아나콧마이당을 지지하면서 이변을 일으켰다. 김홍구 · 이미지(2020: 93)는 탁신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군부의 개입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나콧마이당을 지지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탁신과 군부를 모두 지지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인 MZ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1981년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공통으로 경험하였으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위 질문에 답할 때 기존의 세대와의 차이점을 도출하며 세대의 차이가 태국 사회에서 중요한 균열이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표 1> 2018년 세계 가치 조사(WVS): 젊은 세대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

질문 번호와 응답	29세 이하	30세-49세	50세 이상	전체 평균
211번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할 수 있다	36.6%	26.2%	20.0%	26.2%
219번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독려할 의사가 있나요?			
할 수 있다	33.5%	26.4%	18.1%	24.9%
220번	SNS를 통해 정치적 행동, 시위를 주도할 의사가 있나요?			
할 수 있다	31.9%	27.2%	18.4%	25.0%

첫째, MZ세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탁신의 민주주의 시기와 기술의 발달을 경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태국은 2004년을 기준으로 언론 자유에 있어 높은 순위인 3위를 기록하던 국가였다(Streckfuss 2014: 116). 그러나 이후 2006년 쿠데타를 경험하고 왕실모독법(lese-majeste law)과 2017년에 강화된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 Act)에 의한 처벌 횟수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부르게 된 것이다. 1981년생이 20세로 대학 교육을 시작할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도 탁신이 집권하던 시기였다. 군부의 지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공간이 존재했다. 2018년의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살펴보면, 20대의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시위 참여 의사가, 그리고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게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독려(encouraging others to take action), 그리고 정치적 행동이나 시위를 주도할 의사가 있는냐고 물었다. <표 1>을 통해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각각 20대는 34.6%와 31.9%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의 평균이 각각 27.6%와 25.0%인 것으로 20대가 정치

적 행동에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이다. 다른 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20대가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치 활동을 독려하거나 시위를 주도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지점이 결과의 핵심이다.

둘째, 태국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같이 대학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비율이 1990년대 이후 높아지면서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식인층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UNESCO의 통계를 살펴보면, 성별에 상관없이 태국 국민의 대학 교육기관 입학 비율은 1995년 20%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거쳐 2001년에 39%를 기록했다. 가장 높았을 때는 2011년인데 51%를 기록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44%를 기록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이 교육을 받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표출할 능력을 갖췄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확보하고 있다(Chu and Welsh 2015: 158). 추와 웰시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정치 체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세대라고 진단한다. 태국에서도 이처럼 높아지는 대학 교육 비율을 바탕으로 사회에 비판적인 젊은 유권자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반대로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어떤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가? 첫째, MZ세대의 유권자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왕실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MZ세대는 왕실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왕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 폭넓은 연대 내지는 동맹(coalition)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McCargo 2021). 2020년 이후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젊은 사람들의 시위와 인터넷 활동에 맞서서 왕실을 옹호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Sombatpoonsiri 2023) 사회 균열은 왕실 개혁을 둘러싼 대립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1976년 탐마삿 학살과 1992년 5월을 지켜본 세대이다. 시위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시위에 참여하면 참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같이 느낀 세대이다. <표 1>에서 사용된 WVS의 211번 문항에서 평화적인 시위에도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would never do)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55%, 30-49세가 63%, 50대 이상이 71.2%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시위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1964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유사한 지점을 공유할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와 가장 다른 집단은 1963년 이전 탄생의 베이비부머 세대이다. 미국의 세대 연구에서도 보면 밀레니얼 세대와의 비교는 X세대도 대상에 포함되어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이거나 그 전 세대와 이루어졌다(Towner and Munoz 2016; Rouse and Ross 2018). 본 연구도 역시 MZ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사이를 비교한다. X세대는 그 사이에서 두 세대의 중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세대의 효과는 전적으로 그 세대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Rouse and Ross 2018: 5). 세대를 평균적으로 파악하여 젊은 세대와 윗세대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가 다를 때에 세대의 차이가 중요한 사회적 균열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대의 차이는 2019년 선거 결과를 통해서 기존과 다른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정우·길정아(2023)는 2019년도 총선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의 차이가 정당 지지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1963년도 이전 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팔랑 뿌라차랏당을,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는 아나콧마이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프어타이당을 지지하지 않는 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균열이 유권자의 집단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를 통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

(Ford and Jennings 2020)이라고 볼 때, MZ세대와 1963년 이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이는 2019년 총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 균열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균열은 세대 간에 정치적 관심 형성에 차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2. 가설: 인터넷,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정부에 대한 신뢰, 시위 참여 경험

기존 연구에서 미국,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지역적으로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이다. 인터넷,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정부에 대한 신뢰이다. 본 요인들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 동시에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시위 참여 경험’이라는 변수의 효과도 확인하고자 한다. 세대의 차이가 태국에서 중요한 사회 균열로 등장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위의 요인들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 관해 서술하고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은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선거 권위주의(electoral autocracies)에서도 유권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의 사용이 정치참여를 독려한다고 알려져 왔다.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는 토론을 진행하고 친밀감을 형성해 정치적 관심을 증대하는 것이다(Bode et al. 2014; Kahne and Bowyer 2018).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국가에서 SNS의 역할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정부가 배포하는 공식 자료 이외에 다른 사실에 관해 SN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습득은 시위로의

참여 등 정치참여와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Lee et al. 2015).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한 관심을 SNS를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러시아 선거 권위주의의 경우에는 독재자가 유권자들이 인터넷에 불만을 표출하게 하고 해소하게 하는 작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하는 가설은 바로 인터넷 사용 역시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도 볼 수 있었듯 MZ세대는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의 사용이 MZ세대일 경우에 더 높아지는 교호작용(interaction)을 보일 것이다. 인터넷의 사용이 정치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기존의 연구에 상보적인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인터넷을 사용하는 MZ세대 유권자는 사용하지 않는 다른 유권자에 비해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주위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의 경우,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SNS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윗세대보다 더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의 경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에 상관없이 정치에 관한 대화를 더 자주 나누는 유권자일수록 정치에 대해 더 높은 관심도를 보일 것이다. 셋째로 제시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이다. MZ세대가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여 이끌고 있지만, MZ세대 중에도 군부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세대의 효과와 상관없이 유권자 개인의 정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할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 관심을 더 높일 것이다. 위논의를 통해 아래의 두 가설을 제시한다.

H2: 일상에서 나누는 정치적 대화는 세대의 효과와 상관없이 유권자의 더 높은 정치적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H3: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세대의 효과와 상관없이 유권자의 더 높은 정치적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변수인 시위 참가 경험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한다. 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참여한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 이후, 주위 사람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대화를 나누면서 동질감을 형성할 것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상대방과의 충돌과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시위의 경우에는 같은 구호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이다. 시위의 참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유권자에게는 높은 관심을, 관심이 있었던 유권자에게는 더 높은 관심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미국에서의 연구를 보면, 시위 참여 경험자는 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erkat and Blocker 1997). 이는 시위 참여의 경험이 미국 유권자의 정치적 인지/관심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대에 따라서 시위 참가의 경험이 정치적 관심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X세대와 1963년도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1976년 탐마삿 학살과 1992년 5월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였기 때문에 시위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어 시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WVS의 211번 문항에서 평화적인 시위에도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would never do)고 답한 비율이 20대가 55%, 30-49세가 63%, 50대 이상이 71.2%였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때, 1963년도 이전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시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고 정치적 관심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4A: 시위에 참여한 경험은 유권자의 더 높은 정치적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H4B: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963년도 이전의 세대는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낮은 정치적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IV. 경험적 분석 결과

1. 자료, 분석 모델, 변수

태국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는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ABS)를 활용할 수 있다. ABS는 4년마다 한 번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료를 공개한다. 본 연구는 2014년에 조사된 제4차(wave 4), 그리고 2018년에 조사된 제5차(wave 5) 데이터의 태국 자료를 이용한다. ABS는 무작위(randomized)로 추출된 태국 국민 응답자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찾아가 설문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어서 통계 분석 사용에 적합하다. 태국의 국립발전행정연구원(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과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있지만 ABS와 같이 공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추후 태국의 여론 조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raw data)의

사용, 그리고 태국에서 직접 수집된 조사 활용이 가능하다면 본 연구의 분석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에 관한 관심이 있나요?”(How interested would you say you are in politics?)의 문항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Wave 5는 Q46, wave 4에서는 Q44를 활용하는데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정치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정치에 관한 관심을 측정하는 데는 본인의 주관적 대답이 가장 정확하다. 응답은 “Very interested”, “Somewhat interested”, “Not very interested”, “Not at all interested”로 나뉜다. 응답이 위계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형태의 종속변수에 맞는 분석인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양적 방법론 활용을 통해 태국의 사례에서 각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을 위한 주요한 독립변수는 네 개의 변수, 시위 참여 경험,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적 대화, SNS 사용이다.¹⁾ ABS wave 4, wave 5에서 해당하는 질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와 세대별 터미 사이의 교호변수(interaction term)를 생성하였다. 교호변수란 두 설명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이 MZ세대 여부에 따라 인터넷 사용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여부, 주위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와 각각 MZ세대 여부 사이의 교호변수를 포함한다. 교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양(+)의 계수를 보인다면 MZ세대일 때 각 설명변수의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뜻이고, 음(-)의 계수를 보인다면 오히려 효과가 약하다는 의미이다. 가설

1) 시위 참여 경험은 wave 5(이하 w5)의 Q79, wave 4(w4)의 Q76을, 정부에 대한 신뢰는 두 wave 모두 Q7, 정치적 대화는 w5 Q48, w4 Q46, 마지막으로 SNS 사용은 두 wave 모두에서 50번 문항을 활용하였다.

H4B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 시위 참가 여부와 1963년도 이전 세대 여부의 교호변수를 넣어 별도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여섯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응답자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몇 년 안에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Q6)의 질문이다. 태국의 학생 활동가 네띠윳 초띠팻파이싼(Netiwit Chotiphathaisal)은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 상황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이 시위에 나선다고 주장한 바 있다(Chotiphathaisal and Aneknumwong 2020). 이로 볼 때,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경교·고영준(2020)의 연구를 보면 태국 대중은 군부, 민주 정부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한다면 민주주의로 인식한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인식에 응답하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하였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정치에 관한 관심이 오른다는 양의 상관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학 교육 이수 여부의 여부이다.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하였다.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 데이터에서 개인 정보를 묻는 부분의 데이터(SE5)를 활용하였다. 응답에서 대학 교육 이상인 값 8 이상으로 답하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하였다. 2020년 이후에 태국 정국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을 포함하였다. 남성이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 태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연구(Iwanaga and Suriyamongkol 2008)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녀의 차이에 따라 정치적 관심이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넷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하였다.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의 SE14 문항을 활용하였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1, 높으면 5의 지표이다. 여섯째는 시위에 참여해보았는가의 여부이다.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정치에 관한 관심이 더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지역 고정효과를 보기 위하여, 지역 더미를 포함하였다.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에서는 방콕, 북부, 북동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고 있다. 각 지역에 거주한다고 답하였으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변수를 지역 고정효과로 통제할 수 있다. 여섯째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가 제4차, 제5차의 다른 시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연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다.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 2>의 기술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변수의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정치적 관심)	2308	3.46	0.91	1	4
시위 참여 경험	2242	0.08	0.27	0	1
정치적 대화	2308	0.78	0.58	0	2
정부에 대한 신뢰	2210	1.87	1.41	0	6
인터넷 사용	1024	0.89	0.31	0	1
MZ세대	2308	0.21	0.41	0	1
1963년 이전 세대	2308	0.35	0.48	0	1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	2081	0.17	0.81	0	1
고등 교육	2272	0.14	0.35	0	1
남성	2306	0.47	0.50	0	1
소득 수준	2150	2.26	1.18	1	5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인이 정치적 흥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SNS에서 정치에 관한 토론에 참여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한 분석, 혹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 가능한 자료는 2014년과 2018년 설문에 한정되어있으며 한계가 있다. 자료 수집을 추가한다면 본 연구를 발전하게 하거나 반박할 연구가 추후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정치적 흥미를 결정하는 정치학의 연구는 정치에 관한 대화가 정치적 관심 형성에 선행한다는 전제로 분석하였다(박선경·신재혁 2019: 8).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세대의 구분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분류에 따라 Z세대는 1997년 이후 탄생한 사람,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X세대는 1964년부터 1981년까지, 그 이전 세대는 1963년 이전에 탄생한 자로 구분하였다(Dimock 2019).

2.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토론

<표 3>은 본 연구의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교호변수를 넣지 않고 우선 기존 연구 검토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한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시위 참가 여부, 주위 사람들과의 정치적인 대화는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터넷 사용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고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0에 가까운 계수를 보여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교호변수를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세대의 차이에 따라 더 강한 효과를 보이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교호변수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설명변수가 유의미함을 보인다면, 그것은 세대의 차이와 관계없이 정치적 관심도에 양의, 혹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번째 모델에서 각각 인터넷 사용, 정치적 대화, 정부 신뢰와 MZ세대 사이의 교호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 모델 2는 인터넷 사용과 정치적 대화의 교호변수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 신뢰의 경우, 정부를 신뢰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이 MZ세대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MZ세대가 아닌 1963년도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 각 변수의 교호변수를 포함하여 별도의 분석 모델을 실행하였다. 1963년도 이전 세대에서 정부를 신뢰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이 올라갈 가능성이 컸다. 가설 3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대에서 다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분석 모델은 가설 4A와 4B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주장하지 않았던 시위 참가 여부가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고안된 가설 4A는 분석 모델 1, 2, 3에 걸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모델 3에서 나타난 시위 참가 여부가 종속변수의 미치는 영향은 계수를 통해 승산비(odd ratio)를 계산하면 알 수 있다.²⁾ 승산비를 계산하면 2.51이 도출되는데, 이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서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확률이 2.51배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가설 4a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근거를 보이

2) $\exp(0.92) = 2.51$.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경험적 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정치적 관심		
	분석 모델 1	분석 모델 2	분석 모델 3
시위 참가 경험	0.69*** (0.25)	0.64*** (0.25)	0.92*** (0.28)
인터넷 사용 여부	-0.38 (0.27)	-0.27 (0.31)	-0.36 (0.27)
정치적 대화	1.82*** (0.15)	1.71*** (0.18)	1.83*** (0.15)
현 정부에 대한 신뢰	-0.11 (0.09)	-0.05 (0.10)	-0.12 (0.09)
1963년 이전 세대	0.53*** (0.24)	0.56*** (0.24)	0.71*** (0.25)
MZ세대	-0.28* (0.17)	0.38 (0.64)	-0.28* (0.17)
<hr/>			
교호변수			
인터넷 × MZ세대		-0.64 (0.59)	
정치적 대화 × MZ세대		0.29 (0.27)	
정부 신뢰 × MZ세대		-0.18* (0.11)	
시위 × 1963이전세대			-1.20** (0.59)
<hr/>			
통제변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0.24 (0.23)	-0.23 (0.23)	-0.23 (0.23)
고등교육	0.11 (0.19)	0.09 (0.19)	0.09 (0.15)
남성	0.01 (0.15)	0.00 (0.15)	0.00 (0.15)
소득 수준	0.08 (0.07)	0.09 (0.07)	0.09 (0.07)
지역 더미	예	예	예
연도 더미	예	예	예
Pseudo R ² (Nagelkerke)	0.31	0.31	0.31
관찰 수(n)	718	718	718

참고: *p<0.1; **p<0.05; ***p<0.01

세 번째 분석의 교호변수는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 시위 참여 여부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가설 4b의 기대처럼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시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을수록 정치에 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석 모델을 확인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세대는 정치적 관심이 높다는 계수를 보여왔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시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면 나이가 많은 세대더라도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b 주장의 경험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MZ세대와의 교호작용을 확인하고자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MZ세대와 시위 참가 여부의 교호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인터넷의 사용은 세대에 따라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을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Sinpeng 2021).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ABS 데이터에서는 wave 5 데이터부터 응답자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 정치 정보로 수집하는가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응답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수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Pankaew et al. 2022; Meesuwan 2016)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시간문제를 보인다.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발견은 제1종 오류(Type I error)일 수 있다. 시간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자료를 통해 시위 동향 분석은 수행된 바 있다(Nyblade et al. 2015; Sinpeng 2021). 이에 더해, 인터넷 사용 자체는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어도, 사용하는 인터넷 SNS의 종류에 따라서 정치적 관심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인터넷이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정치적 대화는 세대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치사회학 연구에서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정치적 대화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발견(박선경·신재혁 2019)이 태국의 사례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 변수 자체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지만 교호변수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MZ세대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오히려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고, 1963년도 이전 세대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반대로 관심이 높아진다. 세대의 차이에 따른 다른 점을 발견하였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참여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후속의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위 참여한 경험이 정치적 관심을 형성하며,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시위 참가 경험이 정치적 관심도를 더 낮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가 시위 참여 여부에 따라 정치적 관심이 더 높다가보다는, 나이 많은 세대가 시위 참여 여부에 따라 정치적 관심이 낮아 상대적으로 MZ세대의 활동이 나이 많은 세대의 활동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은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이다. 더 많은 관심이 어떠한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군부의 지배 기간에 나타나는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의 결정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9년 총선 이후 세대가 태국 정치에서 중요한 사회적 균열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2020년 이후의 시위로 이어졌다. 2019년과 2020년의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젊

은 유권자들이 아나콧마이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나콧마이당을 지지하기 이전에도 젊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아나콧마이당을 지지하거나 2020년 이후에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그 이전에는 부재하였을까? 그리고 정치적 관심 역시 세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수행된 ABS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수행 결과, 주위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는 세대의 차이에 상관없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1963년도 이전 세대의 경우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컸다. 또한, 시위 참여를 해본 유권자는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세대의 유권자일수록 시위 참여 경험이 있으면 낮은 정치적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변수의 중요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시위를 참여해 본 유권자의 경험이 정치적 관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시위에 참여하고 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아나콧마이당과 같은 대안 정당을 지지하게 하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ABS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국가와의 비교 분석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ABS는 태국 정치 연구에도 잘 활용되고 있으며(Pankaew et al. 2022; 서경교·고영준 2020; Meesuwan 2016) 추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도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에 대해 다른 국가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태국과 같은 분석 결과를 보이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렛추싸꾼(Lertchoosakul 2021c)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의 인터뷰 연구들의 경우 특정 집단에 집중을 한 인터뷰

(focus interview, survey)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그에 대한 상보적인 관점에서 세대의 효과가 2019년도 이전에 한해 정치적 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는가를 양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2020년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양적 연구는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지 질적 연구와 같이 구술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경향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후 연구를 통해 마땅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태국 NIDA의 경우에는 자료를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뿌라차티뵁 왕립 연구소(KPI: King Prajadhipok's Institute)의 경우에는 ABS, WVS 등과의 협력을 진행하여 별도의 오픈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후 태국에서 직접 더 자세한 질문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본 연구가 확인한 효과를 폭넓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23년도 총선 결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확보하고 2020년 이후의 경향을 확인하고자 여러 기관에 접촉하였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료를 확보한다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이전의 결과가 2020년 이후에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홍구 · 이미지. 2019. “태국 2018: 군부의 ‘불완전한’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막바지 준비.” 『동남아시아연구』 29(2): 127-159.
- 박선경 · 신재혁. 2019. “가족끼리의 정치에 관한 대화는 투표 참여 확률을 높일까?” 『21세기정치학회보』 29(4): 1-22.
- 서경교 · 고영준. 2020.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상황: 대중 인식을 통한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30(4): 293-333.
- 이동윤. 2020. “태국의 민주주의 실험: 성공과 좌절.” 『아시아연구』 23(2): 249-272.
- 이재성. 2007. “한국정치사와 구술사: 정치학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 『한국사회과학』 29: 167-199.
- 이정우 · 길정아. 2023. “태국의 세대 정치: 20·30세대와 미래전진당.” 2023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 한유석. 2020. “태국 2019: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 『동남아시아연구』 30(1): 133-156.
- 현시대. 2023. “태국 2022: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 『동남아시아연구』 33(1): 233-279.
- Bhuket, Pichai Ratnatilaka na, 2013. “The Social Factors influencing Thai Stu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NIDA Development Journal* 53(4): 151-169.
- Bode, Leticia, Emily Vraga, Porismita Borah, and Dhavan Shah. 2014. “A New Space for Political Behavior: Political Social Networking and its Democratic Consequenc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3): 414-429.
- Brading, Ryan. 2017. “Taiwan’s Millennial Generation: Interests in

- Polity and Party Politics.”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1: 131-166.
- Charoenthanasakul, Tanaporn, and Wannarat Natee. 2023. “Twitter and the protest movement in Thailand: A thematic analysis of highly retweeted tweets during the pro-democracy protests.” *First Monday* 28(6): 1-17.
- Chotiphathaisal, Netiwit and Suphanut Aneknumwong. 2020. “Why Thai students are prepared to risk everything.” *Nikkei Asia* August 18.
- Chu, Yun-han, and Bridget Welsh. 2015. “Millennials and East Asia’s Democratic Future.” *Journal of Democracy* 26(2): 151-164.
- Dimock, Michael. 2019. “Defining generations: Where Millennials end and Generation Z begins.” <https://pewrsr.ch/2szqtJz> (검색일: 2023.03.25.)
- Dokchaba, Phannapa, and Boonyou Khorpornpraset. 2019. “Political information seeking through new media, political consciousness, political trust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in Bangkok and Metropolitan region.” *วารสารนาคบุตรปริวรรต* 11(3): 78-86.
- Dostie-Goulet, Eugenie. 2009. “Social networks and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interest.”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405-421.
- Ford, Robert, and Will Jennings. 2020. “The Changing Cleavage Politics of Western Europ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3: 295-314.
- Haenschen, Katherine, and Jay Jennings. 2019. “Mobilizing Millennials Voters with Targeted Internet Advertisements: A Field Experiment.” *Political Communication* 36: 357-375.

- Iwanaga, Kazuki, and Morijorie Suriyamongkol eds. *Women and Politics in Thailand: Continuity and Change*. Copenhagen: NIAS Press.
- Kahne, Joseph, and Benjamin Bowyer. 2018.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Social Media Activity and Social Networks." *Political Communication* 35(3): 1-24.
- Lee, Paul S. N., Clement Y. K. So, and Louis Leung. 2015. "Social media and umbrella movement: insurgent public sphere in formation."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8(4): 356-375.
- Lertchoosakul, Kanokrat. 2021a. "The white ribbon movement: high school students in the 2020 Thai youth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206-218.
- _____. 2021b. "The Paradox of the Thai Middle Class in Democratisation." *TRaNS: Trans -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9: 65-79.
- _____. 2021c. "Book Review: Future Forward: the rise and fall of a Thai political party." *Asian Studies Review* 46(1): 187-189.
- Lupia, Arthur, and Tasha Philpot. 2005. "Views from Inside the Net: How Websites Affect Young Adults' Political Interest." *The Journal of Politics* 67(4): 1122-1142.
- McCargo, Duncan, and Anyarat Chattharakul. 2020. *Future Forward: The Rise and Fall of a Thai Political Party*. Copenhagen: NIAS Press.
- McCargo, Duncan. 2019. "Democratic Demolition in Thailand." *Journal of Democracy* 30(4): 119-133.
- _____. 2021. "Disruptors' Deilemma? Thailand's 2020 Gen Z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175-191.

- McDonald, Jared, and Melissa Deckman. 2023. "New voters, new attitudes: how Gen Z Americans rate candidates with respect to generation, gender, and race."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11(2): 345-365.
- Meesuwan, Sanyarat. 2016. "The effect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the internet increas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ai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 Pacific Studies* 12(2): 57-82.
- Nyblade, Benjamin, Angela O'Mahony, and Aim Sinpeng. 2015. "Social Media Data and the Dynamics of Thai Protests."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3(5): 545-566.
- Pankaew, Attasit, Stithorn Thananithichot, and Wichuda Satidporn. 2022. "Determinan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ailand: An analysis of survey data (2002-2014)." *Asian Politics & Policy* 14(1): 92-113.
- Phalapong, Pakorn. 2022. "Milk Tea Alliance: Constructing Transnational Identity by Consuming Milk Tea in the Asian Context." *Thai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6(2): 1-14.
- Prior, Markus. 2010. "You've Either Got it or You Don't? The Stability of Political Interest over the Life Cycle." *The Journal of Politics* 72(3): 747-766.
- Quintelier, Ellen. 2007.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young and old people." *Contemporary Politics* 13(2): 165-180.
- Rouse, Stella M. and Ashley D. Ross. 2018. *The politics of Millennials: Political Beliefs and Policy Preferences of America's Most Diverse Gener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herkat, Darren, and Jean Blocker. 1997. "Explaining the political and personal consequence of protest." *Social Forces* 75(3): 1049-1070.
- Sinpeng, Aim. 2021a. "Hashtag activism: social media and the #FreeYouth protests in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53(2): 192-205.
- _____. 2021b. *Opposing Democracy in Digital 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ombatpoonsiri, Janjira. 2023. "A lot of people still love and worship the monarchy: How polarizing frames trigger countermobilization in Thailand." *Journal of Peace Research* 60(1): 88-106.
- Streckfuss, David. 2014. "Freedom and Silencing under the Neo-Absolutist Monarchy Regime in Thailand, 2006-2011." Pavin Chachavalongpong(eds.). *Good Coup Gone Bad: Thailand's Political Development since Thaksin's Downfall*. ISEAS-Yusof Ishak Institute: 109-138.
- Suraprasert, Peeranut, Wanlop Rathachatranon, and Somkiat Wanthana. 2021. "Political Particip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Faculty of Humanity, Kasetsart University." *Management Sciences Valaya Alongkorn Review* 2(2): 1-11.
- Towner, Terri, and Caroline Lego Munoz. 2016. "Boomers versus Millennials: Online Media Influence on Media Performance and Candidate Evaluations." *Social Sciences* 5(4): 56.

(2023.09.26. 투고, 2023.10.10. 심사, 2023.10.31. 게재확정)

<Abstract>

Politics of Generation in Thailand: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Voter's Political Interest

Jeongwoo LEE
(Korea University)

Since 2019, generational factors have emerged as one of the key social cleavages in Thailand. While generationa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rise of the Future Forward Party, was there no difference based on generational factors before the year of 2019? Was there no precursor of generational factor manifesting as the social cleavag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interest in Thailand based on generational differences, using data from the Asian Barometer Survey conducted in 2014 and 2018. Empirical findings of this paper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in consistent to what was suggested in existing research regarding the influence of family political discussions on the political interest of Thai voters, such discussions were found to increase political interest regardless of generation. Internet use did not affect political interest, while the effect of trust toward the government varied according to generations. Second, this paper argues that voters with experience participating in protests would likely show greater political interest.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ose with protest experience had higher political interest, and among older generations, having

participated in protests was associated with lower political interest.

Key Words: Asian Barometer Survey, Generation, Political Interest, Protest, Thailand, Voters

